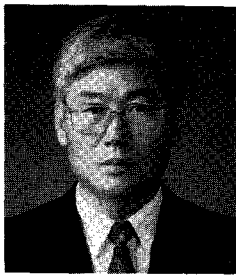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 형 재

제주지부 채란분과위원장

본 회 15대 장대석씨의 회장 취임을 축하 드린다. 전국 양계인을 대표하여 많은 봉사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주도 생산농가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회장께 바라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1994년까지만 해도 제주도내 달걀의 생산과 소비가 적정선으로 유지되었지만 그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로 생산체제가 대형화 되었고 따라서 생산량이 100% 가까이 증가되면서 제주도에서는 많은 금액의 반출비용을 부담하면서 육지에 양계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인들의 높은 D/C폭 요구로 생산자들은 더욱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사료 구입 등 모든 농자재 구입 등에 많은 물류비용으로 생산원가는 높은 반면 육지에 반출하는 양계산물의 물류비를 농가에서 지불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양계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있어 제주도의 양계인들이 합심하여 생산조절을 이루어 가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싼 수입품이 들어온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국내 생산현황과 소비량의 관계만을 생각하여 출하 가격을 조절하여 왔으나 상황이 달라져서 종합적인 정보가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국내에 물론 국외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도의 양계업이 급격히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바란다.

즉,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제값 받기가 가능한 시대이니만큼 제주도만의 특수성을 벗어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소득향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재 달걀이나 닭고기 값이 양계속보 등을 통해 고시는 되고 있지만 실제 거래 단가와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가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값을 협회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고시하여 상인들로부터 받게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또한 제주 지역은 특히 육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원자재 비용에 대해 정보가 늦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료비, 약품비, 초생추비 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농가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한다. **양계**